https://doi.org/10.18856/jpn.2017.23.4.001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 다시 읽기
– ‘문화주의’와 근대 금욕윤리의 이념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병구*

1. 서론
2. 다이쇼(大正) 문화주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근거
3. ‘민족 개조’라는 ‘대종교’, 근대 금욕윤리의 정치학
4.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역설적 접속을 본질로 하는 민족주의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다이쇼 시기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주의’를 이념적 근거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광수는 ‘민족성 개조론’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도덕적인 방면에서 민족 개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정치와 문화의 분리, 문화의 특권화로 대변되는 다이쇼기 일본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로 이광수는 ‘인격’의 완성을 ‘민족성 개조’의 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술과 인생, 정신과 권력을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문화 자체가 정치의 타당한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민족성 개조론’에서 역사적 현실의 문제는 괄호화되고 만다.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www.kci.go.kr

둘째,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무실’과 ‘역행’을 실천 원리로 삼고 있다. ‘무실’과 ‘역행’은 개인이 ‘자기규율’의 정신에 따라 근면한 직업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한다. 따라서 ‘무실’과 ‘역행’의 특징은 직업윤리 및 노동윤리의 내면화에 있다. 자기규율의 정신과 노동윤리의 내면화는 근대 금욕윤리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근대의 금욕윤리를 내재화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가 ‘무실’과 ‘역행’의 실천 원리를 통해 ‘민족성 개조’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르봉의 ‘민족심리학’ 수용을 통해 ‘민족성’이라는 형이상학적 본성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내재된 근대의 금욕윤리는 역사적 현실의 문제 해결을 개인의 심리적 태도 전환, 즉 인생의 ‘예술적 개조’로 치환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무화하는 이념적 효과를 낳게 된다.

(주제어: 이광수, 민족주의, 민족성 개조론, 다이쇼 문화주의, 정치, 문화, 예술적 개조, 무실, 역행, 금욕윤리, 자기규율, 민족심리학)

1. 서론

민족주의는 ‘상상의 공동체’인 특정한 ‘내이션’(국민 또는 민족)에 애착을 갖고 이를 특권화하는 특수주의 이념의 한 형태이다. 민족주의가 특수주의의 이념의 한 형태인 한, 그것에 대한 비판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보편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촉발 직후 제2인터내셔널에 참가하고 있던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 대부분이 자국의 전쟁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한 사태, 즉 보편

www.kci.go.kr

주의자들의 갑작스러운 특수주의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역설적 사태는 보편주의 이념이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민족주의가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교차, 즉 특수하게 한정된 공동성으로의 지향과 보편적인 사회성으로의 지향 양자 사이의 역설적인 접속을 본질로 하는 이념이라는 데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그 자체에 내재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간의 대립적 모순을 가시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인 메카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에 근거할 때 상호 대립하는 두 벡터의 역설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가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의에서 던져야 할 중심 물음일 것이다.[1)]

식민지의 민족주의가 그 자체에 내재된 형이상학적 속성으로 인해 적대자인 식민 제국 민족주의의 파생담론일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도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간의 역설적 접속이라는 민족주의 이념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식민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주의란 민족주의의 발전이자 부정이다. 즉 제국주의란 이민족 지배의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의 자기 부정의 계기가 배태되고 자기모순이 심화되는 것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이념태인 것이다.[2)] 따라서 식민 제국의 민족주의는 보편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의 자기부정을 함축한다. 그러나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족주의의 경우 그와 같은 보편적 동일성으로부터의 일탈과 민족적 차이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

1) 오사와 마사치, 『내셔널리즘의 역설』, 김선화 옮김, 어문학사, 2014, 29-31쪽 참조.
2) 마루야마 마사오는 "제국주의는 내셔널리즘의 발전이며 동시에 그 부정이다"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주의가 이중성을 갖는 것은 제국과 국민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인데, 제국이 초민족적 권력 단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국민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체제 하에서 통합된 인식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고마고메 다케시,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이명실 외 옮김, 역사비평사, 2007, 22-24쪽 참조.

www.kci.go.kr

생한다. 식민지 민족주의는 외견상 제국주의와 적대적 길항 관계를 맺지만 보편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식민 제국의 민족주의를 자신의 성립 조건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식민 제국 일본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준 신채호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식민지 민족주의의 아이러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수' 이념으로 표상되는 근대 계몽기 신채호의 민족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의 기원을 이루는 메이지 일본 국수주의의 파생담론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근대 계몽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이념과는 대조적으로 1920년대 전반기 '문화적 민족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식'[3]이자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정치에 호응하여 제기한 '합법적 민족운동의 하나의 가능한 최대치의 세계관'[4]을 보여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 또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역설적 접속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계몽기 신채호의 민족주의와 '민족성 개조론'으로 표상되는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식민 제국 일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둘 다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는 점[5], 각각 '국수'와 '민족성'이라는 민족 자체의 고유한 본질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것이었다는 점

3) 김현주, 「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1920년대 초반 『개벽』지의 '정신 · 민족성 개조론' 연구」, 『상허학보』 제6집, 상허학회, 2000, 217쪽.
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732쪽.
5) 도면회 · 윤해동 엮음,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009, 32-33쪽 참조. 도면회에 따르면, 근대 계몽기 신채호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갈래인 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논리에 근거한 문명론적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즉 그는 한국의 무기력화와 식민지화의 원인을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당파투쟁, 관리의 부정부패로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인식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과 관련된 논설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www.kci.go.kr

등에서 서로 동일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두 민족주의 모두 문화적 · 역사적인 차원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형이상학적 민족 개념에 근거하여 민족의 현재를 민족성이 타락한 소외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 이념이 갖는 역설적 특성에 주목하여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을 다시 읽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광수의 「民族改造論」(『開闢』, 1922. 5)을 전후로 하여 발표된 일련의 논설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의 고찰을 토대로 1920년대 전반기 문화적 민족주의의 역설적 양상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정치적 · 문화적 실천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6]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대 문화적 민족주의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역설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광수를 비롯하여 이 시기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이 제기한 '민족성 개조'란 말 자체가 다분히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역설적인 접속을 표상하는 특이한 조어법이기 때문이다.[7] "「지금은 개조의 시대다!」하는 것이 현대의 표어이요, 정신"[8]이라는 이광수의 언급

6) 김현주,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역사와 현실』 제57집, 역사비평사, 2005, 114쪽.

7) 김항은 민족주의란 한편으로 자기명명과 자기표상에 관련된 자폐적 언설구조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시작부터 전지구적인 범주체계에 접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자기개방의 의식체계라는 '역설적 접속'을 본질로 한다는 전제에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1910년대 일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립되는 사상 조류를 하나의 논조 안에 마름질한 기이한 텍스트라 평가한다. 김항,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민족문화연구』 제5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64-166쪽 참조.

8)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69쪽.

www.kci.go.kr

이 시사하듯, '개조'란 말은 '인류', '해방', '상호부조', '인격주의', '사회주의' 등 다이쇼 데모크라시 담론에서 연원하는 보편주의적 · 이상주의적 지적 흐름을 표상하는 '표어'였다.[9] 이런 의미를 갖는 '개조'란 말이 특정한 '상상의 공동체'의 공동성을 표상하는 '민족성'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성 개조'가 보편주의의 경향성과 특수주의의 경향성이 역설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조어라는 점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이 동시대의 '개조'의 흐름과 접속하여 조선민족을 '현재의 쇠퇴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의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족'을 추상적인 근대적 '개인'으로 해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대해서는 「민족개조론」이란 논설의 문제성으로 인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가 집적되어 왔다. 우선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그것이 3.1운동 직후 '신문화 건설'을 내세우며

9) '개조'는 세계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도모하고자 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지적 흐름을 표상하는 말이다. 당시 '개조'의 흐름은 식민 제국 일본에서는 '민본주의'로 상징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의 고양과 맞물리면서 사상계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본의 사상계에 유행하던 다양한 표어들이 말해주듯, '개조'의 흐름은 이념적으로 단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계주의'라는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세계 개조'를 기획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공동된 특성을 갖는다.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를 비롯한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이 제기했던 '민족성 개조론' 역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 사상계를 풍미했던 보편주의 담론 '문화주의'를 '개조' 맥락에서 수용하여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를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개조'론을 주도했던 요시노 사쿠조, 오야마 이쿠오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주의 담론을 구축하는데 그들의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특성과 일본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제4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109-120쪽 참조.

www.kci.go.kr

전개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데 착목한 운동사적 관점에서 민족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량적·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엘리트주의, 조화와 비폭력, 점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적 민족주의로 평가되었다.[10] 그러나 운동사적 접근은 식민지 상황의 극복을 민족주의의 과제로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대하여 그 내재적 특성을 간과한 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족성 개조'론이 제기된 역사적 문맥에 주목하여 서양의 개인주의와 자유의지를 내면화한 논리에 주목한 논의[11], '문명'에서 '문화'로의 이광수 문제의식 전환이 가져온 이념적 효과의 차원에서 그의 '민족성 개조론'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논의들[12]이 있다. 이들 논의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을 동시대의 문맥 속에서 역사화하여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정치·사상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성 개조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을 다시 살피고자 한다. 다이쇼기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주의'가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 형성에 미친 이념적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이 어떤 점에서 근대 금욕윤리의 특성을 갖는지 등

10)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역사비평사, 1992; 마이클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 나남, 1990 등을 들 수 있다.
11)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역, 창작과 비평사, 2009를 들 수 있다.
12) 서로 논의의 결을 달리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앞서 언급한 김현주의 논문들 외에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엘리 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2008;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담론』, 역락, 2011; 김항,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민족문화연구』 제5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등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이 본 연구에서 다룰 두 가지 논점이다.

2. 다이쇼(大正) 문화주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근거

1922년『개벽』에 발표된「민족개조론」이 '민족성 개조론'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광수는 이 논설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행하던 '세계 개조'의 흐름에 호응하여 '민족 개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민족개조 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세계사적 차원과 조선의 근대사의 차원으로 나누어 개괄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조선민족의 개조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민족성 개조'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정치성의 배제, 도덕성의 강조, 강고한 단체의 중요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은, 1919년 3월 1일 이후 조선민족이 '무지몽매한 야만인종 마냥 지각없이 추이하여 간 정신적 변화'에서 벗어나 "자기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확립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적이요 통일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조선민족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이광수의 언급[13]에서 알 수 있듯이, 3.1 운동의 실패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데 그 기획의 근원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내포된 이념적 함의를 살피려면, 무엇보다 동시대의 맥락에서 그것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성 개조론' 자체가 이광수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3.1 운동 전후로 하여 '신문화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일군의 지식인 집단에 의해 펼쳐진

13) 이광수,「민족개조론」,『이광수전집』17, 삼중당, 1963, 171쪽.

www.kci.go.kr

문화운동의 이념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돈화, 김기전 등이 주도한 천도교 기관지 『개벽』이 '민족성 개조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산한 매체였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행하던 '세계 개조' 사상을 수용하는 맥락에서 '조선민족'의 '개조' 향방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상호 쟁론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한 유일한 매체[14]였다는 점에서 『개벽』은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민족성 개조론'은 김기전, 이돈화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이 담론 투쟁의 차원에서 제기한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3.1운동 직후 식민 제국 일본의 통치전략이었던 '문화정책'에 호응하여 '인격의 개조', '정신의 개조'를 '민족성 개조'의 이념적 목표로 내걸었다는 데 공통성이 있었는데, 이광수가 1921년과 1922년에 걸쳐 '민족성 개조'의 당위성을 역설한 논설들을 『개벽』에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민족성 개조론' 역시 담론 투쟁의 차원에서 전개된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기획과 이념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5]

---

14) 김현주,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역사와 현실』 제57집, 역사비평사, 114쪽.

15) 이돈화와 김기전의 '민족성 개조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 소다 키이치로(左右田喜一郎) 등 다이쇼기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다. 이돈화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상징하는 일본 잡지 『改造』 제2호(1919년 5월)에 실린 쿠와키 겐요쿠의 논설 「世界改造の哲學的基礎」를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개벽』 제6호)에 발췌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고, 「사람性의 解放과 사람性의 自然主義」에서도 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쇼 '문화주의'는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광수 역시 자신의 논설 「中樞階級과 社會」(『개벽』, 1921.7)에서 이돈화를 비롯한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의 '문화운동'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중추계급조성운동'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 3장에서 논하겠지만 「藝術과 人生」(『개벽』, 1921.1)이 쿠와키 겐요쿠가 「世界改造の哲學的基礎」에서 제기한 '勞動創理想論'에 일정 정도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1920년대 전반기 문화적 민족주의들이 주장한 '민족성 개조론'

www.kci.go.kr

『개벽』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성 개조론'의 형성에 다이쇼 시기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주의'가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것이다.[16] 그러나 주목할 점은 '문화주의'의 수용 사실 자체보다 '문화'와 '정치'의 분리 기조 아래 '문화'의 가치를 특권화한 '문화주의'가 '민족성 개조론'에 어떠한 이념적 효과를 미쳤는가이다. 이광수가 '민족개조운동'을 정치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방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을 강조한 까닭, 나아가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이 합법적 틀 안에서 '민족성 개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 이유 등을 일본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메이지 '문명'과의 대비 속에서 형성된 다이쇼 '문화주의' 이념은 비단 사상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제국의 통치 전략의 변화도 견인하였는데,[17] 3.1 운동 이후 시행된 '문화정책' 또한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주의'가 미친 이념적 효과를 살피기 전에 먼저 '문화주의'가 특권화한 '문화'의 용법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20년대 전반기 '문화'는 동시대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화두와도 같은 개념이었지만[18], 문제는 그것이 통일되고 안정된 의미를 가진 개념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문화주의' 맥락에서 사용된 '문화'의 의미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

이 다이쇼기 '문화주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16) 1920년대 '문화주의'의 수용 양상 및 그 특징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글로, 유선영, 「식민지의 '문화'주의, 變容과 事後」,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65-407쪽을 참조할 만하다.

17) '문화주의'가 다이쇼기 식민 제국의 통치 전략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H. Harootunian, "Introduction: Asense of an Ending and thr Problem of Taisho", H. Harootunian & B. Silberman ed., *Japan in Crisis;Essays in Taisho Democracy,* Princeton Univ., 1974, pp.22-25 참조.

18)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현대문학의 연구』 제1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13쪽.

www.kci.go.kr

들은 '문화'를 '민중'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수식어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화주의'에 이념적 근거를 둔 '문화'의 용법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다이쇼 시기 '문화'가 특권화된 것은 메이지 시기의 국가 중심 이데올로기를 표상하였던 '문명' 과의 대비를 전제로 하여 그것에 대한 지성적 거부의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문명' 개념과 서로 착종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광수의 사유가 1917년을 경계로 '문명개화' 패러다임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의 글에서 '정신문명'과 '문화'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실 '문화'란 생각 자체가 붐을 일으켜 엘리트와 대중들의 담론 속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던 때는 1920년대 이후였다. 1920년대 이전 대중적인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문명'과의 대비 속에서 초점화되었던 것이다.[19] 흔히 메이지를 '문명'에, 다이쇼를 '문화'에 연관지어, 전자가 '자기희생 및 봉사에의 참여', '민족주의' 등을 환기하며, 후자가 '인격주의', '문화주의', '세계주의', '자기수양' 등을 연상케 한다는 사유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재구성된 결과여서 '문명'과 '문화' 간 착종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20] '민족성 개조론'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했던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가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착종 현상이 빚어지게 된 배

19) 문화주택', '문화요리', '문화 나이프', '문화 기저귀' 등의 말이 표상하듯, '문화'라는 용어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1920년대 이후로 서구화와 대량소비 등과 연동되어 나온 것이다. 엘리스 K. 팁튼 · 존 클락 엮음, 『제국의 수도, 모더니티를 만나다』, 이상우 외 옮김, 소명, 2012, 163-165쪽 참조.

20) H. Harootunian, "Introduction: Asense of an Ending and thr Problem of Taisho", H. Harootunian & B. Silberman ed., *Japan in Crisis;Essays in Taisho Democracy,* Princeton Univ., 1974, p.15.

www.kci.go.kr

경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문명이라는 말은 종래 특히 메이지 초기에 왕성하게 사용되었고 개화라는 말과 결합하여 당시의 이상을 표현한 말이다. 이른바 문명개화란 주로 새로 들어온 서양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에 대립된 것을 구폐 야만이라 불렀다. …(중략)… 말하자면 소위 물질문명이라 칭해야 할 것이 그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또 서양문명으로 종래의 소위 물질적 방면만이라 하지 않고, 특별히 종교 예술 철학 등의 풍부한 분야가 있는 것을 깨달은 자도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문명을 단지 물질적 발달에 국한하여 이해하지 않고 비물질적 문명, 이른바 정신문명이란 것을 말하는 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때 독일어의 쿨트르에 상응하는 말로 우연히 나온 것이 문화라는 말이다. 그것은 소위 정신문명을 가리키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라는 말이 문명이라기보다 몇몇의 점에서 좋게 반향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의로부터 말하면 문명과 문화와 우열해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말만을 사용하는 자가 있어도 그는 굳이 문책해야 할 것은 아니다.[21]

인용문에 따르면, ‘문명’과 ‘문화’는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우열을 따질 개념은 아니다. 다만 영어 ‘civilization’의 번역어 ‘문명’이 주로 서양의 ‘물질문명’으로 인식되었고, 서구 문명 중에 종교, 예술, 철학 등과 같은 ‘비물질적 문명’, 즉 ‘정신문명’이 있음을 자각하게 된 사람이 생겨남에 따라 ‘정신문명’이란 말이 우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독일어 쿨투르(Kultur)와 결부됨으로써 ‘문화’란 말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이쇼 초기 ‘문명’과 ‘문화’가 절대적인 단절선을 갖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와 같이 ‘문화’가 단일한 의미를 갖는 안정된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 ‘문명’ 개념과의 착종 현상이 빚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주의’

21) 桑木嚴翼, 「大戰と文化」(大正6년 6월), 『文化主義と社會問題』, 東京, 至誠堂, 7-13쪽 참조.

www.kci.go.kr

의 수용 맥락에서 이광수가 사용한 '문화'는 '정신문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광수에게 '문화' 또는 '정신문명'은 '물질문명' 중심의 '문명개화'에 대한 사상적 비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광수가 일찍이 '민족적 이상'의 실현을 '문화'에서 찾으며 '신문화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한 까닭이 '물질중심'의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뚜렷히 보여주는 것이 1917년 유학생 잡지 『학지광』에 발표한 논설 「우리의 理想」이다.

> 只今 야단인 歐洲戰亂도 마치 도깨비불과 같이 世上 사람이 보고 떠들 뿐이오 그 原因이 무엇이며, 그 實質이 무엇이며, 그 進行이 어떠하고 結果가 어떠할 것을 아는 者가 없습니다. …(중략)… 더구나 이번 歐洲大戰亂은 現代文明의 어떤 缺陷을 暴露한 것인 則 이 끝남을 따라 現代文明에는 大混亂, 大改革이 생길 것이외다. 假令 國家主義의 可否라든지 經濟組織의 不完全이라든지, 精神文明에 대한 物質文明의 偏重이라든지, 男女問題라든지 國際法, 國際道德問題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장 分明하게 일어날 大問題외다.[22]

이광수는 제1차 세계대전을 '현대문명의 어떤 결함'을 폭로한 것이라 인식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대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대개혁'이란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일어난 '세계 개조'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광수가 '현대문명의 결함'의 원인으로 정치, 경제 전반의 불완전성과 함께 '물질문명의 편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대문명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문명', '문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광수가 「우리의 理想」에서 '일한합병' 이후 '몰이상의 상태'에 빠져 정신적으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른 조선민족이 새로운 '민족적 이상'을 정할 필요성

22) 이광수, 「우리의 이상」, 최주한 · 하타노 세츠코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 2, 소나무, 2015, 663-664쪽.

www.kci.go.kr

을 논하면서 '신문화 산출'의 가능성을 역설한 까닭은 바로 이런 맥락과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문명', '문화'를 준거로 하여 '신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강조한 이광수의 비전은 역설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물질문명' 편중의 '현대문명'에 대한 반동으로 '정신문명', '문화'의 역할을 특권화하는 이광수의 태도는 문화와 정치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대문명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차원의 '대개혁'을 괄호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의 인용은 이와 같은 역설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 반드시 文化는 政治의 從屬的 産物이라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어떤 民族의 價値를 論 할 때에 반드시 政治史的 位置를 判斷의 標準으로 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만일 저 로마 帝國과 같이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같이 優越한 地位를 占할 수 있다 하면 게서 더 좋은 일이 없건마는, 그렇지 못하고 만일 二者를 不可不得 兼할 境遇에는 나는 차라리 文化를 取하려 합니다. 政治的 優越은 그때 一時는 매우 赫赫하다 하더라도 그 勢力이 衰하는 同時에 朝露와 같이 그 榮光도 스러지고 마는 것이로되, 文化는 이와 反對로, 그 當時에는 그대도록 榮光스럽지 못한 듯하나 永遠히 人類의 恩人이 되어 不滅하는 榮光과 感謝를 받는 것이외다. [23]

여기에서 이광수는 '민족의 가치'가 '정치사적 위치'만이 아니라 '문화'를 준거로 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정치적 우월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문화'는 '불멸의 영광과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족의 가치'를 판단할 때 '문화'가 '정치'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광수가 '민족개조운동'이 정치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 까닭은 바로 정치와 문화의 분리, 문화의 특권화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23) 이광수, 「우리의 이상」, 최주한 · 하타노 세츠코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 2, 소나무, 2015, 659쪽.

www.kci.go.kr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와 문화의 분리가 다이쇼기 식민 제국 일본 '문화주의'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이광수의 이런 인식은 다이쇼 일본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화와 정치의 분리를 전제로 한 '문화'의 특권화가 낳은 이념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문화'가 독일어 '쿨트르(Kultur)'의 번역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신이상주의에 그 연원을 둔 이 말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24] 이광수가 '문화'를 '정신적 생활', 예컨대 '종교적 생활, 예술적 생활, 철학적 생활, 사교적 생활' 등이라고 한정했을 때의 '문화' 개념은 독일어 '쿨트르'에 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를 '정신적 활동'에 한정할 경우 당연히 문화의 목적은 그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내적 통일을 가진 '인격'의 형성, 개인의 '수양'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25] 문화주의 맥락에서 '문화'가 '정신', '인격', '도덕', '예술', '내적 개조', '수양' 등의 용어와 내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론'에서 '수양', '인격'의 형성, '정신적·도덕적 개조', '내적 개조', '예술적 개조' 등을 '외적 개조', '사회 개조'를 위한 전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문화'의 특권화는 예술과 삶, 정신과 권력의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역사적 현실 그 자체를 괄호화하는 이념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26] 이광수가 '문화의 精髓'로서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생의

24) 문화주의는 문화의 영역을 과학 도덕 예술 종교로 나누고 문화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眞, 善, 美, 聖을 열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화주의자 소다 키이치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 법률, 경제, 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시켜 많은 수의 문화가치의 병렬을 주장하였다. 이에나가 사부로, 『근대일본사상사』,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 옮김, 소명출판, 2006, 277쪽.

25) 미야카와 토루외 엮음, 『일본근대철학사』, 이수정 옮김, 생각의 나무, 2001, 294쪽.

26) H. Harootunian, "Introduction: Asense of an Ending and thr Problem of Taisho", H.

www.kci.go.kr

'도덕적 개조'와 함께 '예술적 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藝術과 人生」(『개벽』, 1922. 1)은 '문화'의 특권화가 낳은 이념적 효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은 신문화 건설에 있어서 '민족의 정신 중'에서 '활기 있는 정신력'을 '계발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문학과 예술은 '일국 문화의 꽃'이자 '신문화의 선구'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27]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생의 '예술적 개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사람아 너를 먼저 改造하여라! 이것이 個人의 內的 改造의 道德的 一面이니,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사람의 葛藤과 內的 不平을 除할 수 있지마는 더욱 積極的이요 建設的으로 人生의 幸福을 發하게 하는 것은 人生의 藝術的 改造외다. 藝術的 改造라 함은 個人이 自然과 人事를 對할 때에 가지는 心的 態度의 方向을 變換함을 가르침이외다. …(중략)… 自然과 人事를 볼 때에 그것을 藝術品으로 보고, 나를 볼 때에 藝術을 鑑賞하는 者로 보아라-이것이외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人生을 改造하는 것이 藝術的 改造외다.[28]

이광수는 여기에서 인생을 개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개조'가 하나라면, '자연과 인사'를 예술과 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심적 태도의 방향 변환'에 근거한 '예술적 개조'가 다른 하나다. 그가 '인생의 도덕화'와 '인생의 예술화'를 주장한 것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술적 개조'가 '내적 개조'보다 인생을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문화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예술'을 이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광수가 '예술적 개조'를 주장하는 근거가 현실

Harootunian & B. Silberman ed., *Japan in Crisis;Essays in Taisho Democracy,* Princeton Univ., 1974, pp.15-16. 참조.

27) 이광수, 「문사와 수양」,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17쪽.

28) 이광수, 「예술과 인생」,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31-33쪽.

www.kci.go.kr

이 고통에 찬 불행한 삶으로 가득하다고 본다는 데 있다. 바로 불행에 찬 현실의 삶을 예술품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심적 태도의 변환'을 통해 불행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술적 개조'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이다. 즉 현실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온갖 감정들을 억누르고 인생을 예술로 바라보야 한다는 것이 '예술적 개조'의 요체일 터인데, 이러한 이광수의 주장에는 예술과 인생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함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술과 인생, 나아가 정신(문화)와 권력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는 이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총칭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타당한 '정치'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에게 '문화'란 근본적으로 '정치' 자체와의 대립을 함축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문화'의 목표를 정신의 수양, 개인의 내적 개조에 국한한 것은 '정치'에 대한 '문화'의 도덕적 우월성의 확신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치와 문화의 분리, 문화의 특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이쇼기 일본 문화주의가 낳은 이념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민족 개조'라는 '대종교', 근대 금욕윤리의 정치학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론'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은 1921년에서 1922년 사이 『개벽』에 발표한 일련의 논설들을 통해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성 개조론'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민족개조론」을 비롯하여 「中樞階級과 社會」(『개벽』, 1921.7),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人의 人生觀」(『개벽』 1921.8), 「少年에게」(『개벽』,1921.11~1922.3), 「예술과 인생」 등이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설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논설들을 통하여 그는 '민족성 개조론'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반복

www.kci.go.kr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광수가 이미 1919년 경 '민족성 개조론'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을 밝힌 바가 있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獨立新聞』의 주간으로 있던 시절 이광수는 제2호부터 총 18회에 걸쳐 「改造」라는 제목 하에 발표한 기획 논설에서 '민족개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實', '밋쁨', '十年生聚十年敎訓' '遠慮', '團合' 등 5개 주제 군으로 나누어 전개한 이 논설에서 그는 '민족개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리하여 5백명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되 특히 주의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참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함이외다. 하늘을 말아 나팔을 부는 재주가 있더라도 참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소용없소. 저들은 실로 민족개조라는 대종교(大倧敎)의 사도가 되기에 족한 인격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외다. …(중략)… 이리하여 전 국민이 인재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깨닫는 때면 이는 실현될지니 우리는 인재양성으로 민족적인 공동요구를 삼아야 하겠오. 국시(國是)를 삼아야 하겠소.[29]

인용문에서 이광수는 '인격'을 갖춘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민족개조라는 대종교'를 '민족적인 공동요구', '국시'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광수의 주장이 도산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개조론」의 '변언(辯言)'에서 "민족개조의 사상과 계획은 재외동포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내 것과 일치하여 마침내 일생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이미 이 논설에 그 사상의 맹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0]

---

29) 김사엽 편수, 『독립신문』, 문학생활사, 1988, 286-288쪽.
30) 「개조」와 「민족개조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로,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123-146쪽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이런 맥락에서 이광수가 '민족개조'를 '대종교'에 비유하며 마치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종교적인 비유는 '민족개조'가 금욕윤리에 기반을 둔 기획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전통적인 종교가 추구하던 세속 밖 금욕의 이상을 세속 안의 실천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마치 종교의 '사도'처럼 만드는 것이 근대 금욕윤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31] '민족개조'라는 '대종교'의 '사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앞에서 논했듯이, '인격'의 완성은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던 '문화주의'의 목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개조'의 '사도'가 갖춰야 할 '인격'은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내적 개조'의 목표가 된다. 그런데 이광수가 '인격'을 '덕성을 기초로 건전한 체력과 일문(一門) 이상의 완성한 지식'[32]라고 규정하며 '덕성'을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족성 개조론'이 근대의 금욕윤리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격', '덕성', '도덕', '수양'을 내세운다고 '민족성 개조론'이 근대의 금욕윤리에 기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자기규율'의 내면화, '근면에 기초한 노동표상' 등 근대 금욕윤리의 두 가지 근본 특징을 충족시켜야 '민족성 개조론'이 근대의 금욕윤리에 바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금욕윤리는 '노동'이 사회적 · 문화적 가치 기준이 된 '근대'를 떠받치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규율'의 정신이 직업윤리로 성장함으로써 세속적 금욕의 규범에 비추어 자신의 전체 생활을 방법적으로 조직해가는 것과 그 내면에 작동하는 세속적 규범 '근면주의' 등을 내재적으로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33] 뒤에서 살펴보겠지

31) 今村仁司, 『近代の思想構造』, 人文書院, 1998, 138쪽 참조.
32) 이광수, 「문사와 수양」,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26쪽.

www.kci.go.kr

만,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의 근본사상으로 제시한 '무실'과 '역행'은 바로 이와 같은 근대의 금욕윤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근대의 금욕윤리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의 근본 사상으로 '무실'과 '역행'을 제시하게 된 형이상학적 근거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성 개조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축함으로써 이광수는 '무실'과 '역행'의 사상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구스타브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이다. 이광수는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을 바탕으로 '민족성 개조론'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르봉의 '민족심리학'이 어떻게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그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자기'의 '내적 개조'에서 출발하는 '사회 개조'의 동력을 '정신'에서 찾고 있는 점[34]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 朝鮮民族의 中樞階級이라 하려면 적어도 全朝鮮이 民族的 生活에 對한 共通한 理想을 抱하고 이 生活의 組織을 能히 하며 그 組織의 모든 器官을 足히 分擔하여 運轉할 만한 人格(德과 知와 體)을 備한 個人의 集合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 民族的 生活이라 하면 政治的, 經濟的, 宗敎的, 藝術的, 社交的 모든 部門을 이름이요, 次에 對한 共通한 理想이라 함은 이 모든 部門의 生活의 基礎가 되고 魂이 되는 精神을 이름이니, 爲先 이 精神되는 理想이 確立한 然後에야 健全한

33) 今村仁司, 『近代の思想構造』, 人文書院, 1998, 141-146쪽 참조.

34) 「예술과 인생」에서 "「네가 너부터 改造하여라」 …(중략)… 그대 自身의 改造가 完成되는 날이 天國에 臨하는 날이외다. 우리를 新世界로 引導해 줄 者는 宗敎와 哲學과 科學과 藝術이다. 政治나 經濟는 이런 것을 應用한 것에 不過한 것이니 政治·經濟的 解決은 改造의 完成을 意味하는 것이지마는 順序로는 後외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광수는 '내적 개조', '나' 혹은 '자기'의 개조를 사회 개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광수, 「예술과 인생」,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39쪽.

www.kci.go.kr

社會가 組織될 것이요.[35]

여기에서 이광수는 조선 민족의 생활이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모든 부문에서 건전하게 조직되기 위해서는 '중추계급'에게 '공통한 이상', 즉 모든 생활 부문에 기초가 되는 '정신', '혼'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추계급'이 '민족개조'라는 '대종교'를 이끌어갈 인격을 갖춘 '사도'를 가리키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광수가 '민족개조'가 '도덕적일 것'을 강조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공통한 이상'이란 '민족개조'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건전한 사회'의 조직을 추동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가 '민족개조라 함은 민족성개조라는 뜻'이라고 말한 것은, '공통한 이상'이 표상하는바, '민족개조'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개조'의 형이상학적 원리의 구축이 의미 있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이광수 특유의 근대 민족주의의 서사가 성립되고, 그 서사에 의해서 민족적 현재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성 개조'의 당위성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민족주의의 형이상학은 근대의 인류가 은총의 상태로부터 근대적 소외 상황으로 타락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광수 역시 '민족성 개조론'에서 '조선민족'이 쇠퇴하게 된 현재 상태의 원인을 '민족성'이라는 형이상학적 본성의 타락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성 개조론'을 제기하게 된 근거, 즉 '현재 조선민족이 당면한 쇠퇴'는 이미 '민족성'이 타락한 결과라는 관념을 그 자체 내에 함축한 것일 수밖에 없다.[36] 따라서 이광수가 제기한 '민족성 개조'란 현재 조선민족의 소외된

35) 이광수, 「중추계급과 사회」,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54쪽.
36) 테리 이글턴 외, 『민족주의 · 식민주의 ·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22-23쪽 참조.

www.kci.go.kr

상황을 초월하기 위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민족의 형이상학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족의 형이상학적 본성 회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론으로 끌어들인 것이 다름 아닌 르봉의 '민족심리학'이다.[37]

> 그러면 朝鮮民族의 根本性格은 무엇인고. 漢文武觀念으로 말하면 仁과, 義와, 禮와, 勇이외다. 이것을 現代式 用語로 말하면 寬大, 博愛, 禮儀, 禁慾的(廉潔), 自尊, 武勇, 快活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朝鮮民族은 남을 容恕하여 奴하거나 報復할 생각이 없고, 親舊를 많이 사귀어 物質的 利害 觀念을 떠나서 愉快하게 놀기를 좋아하되(社交的이요), 禮儀를 重히 여기며 自尊하여 남의 下風에 立하기를 싫어하며, 物慾이 淡한지라 齷齪한 맛이 적고 悠長한 風이 많으며, 따라서 商工業보다 文學, 藝術을 즐겨하고, 恒常 平和를 愛好하되 一旦 不義를 보면 「投死求之」의 勇을 發하는 사람이외다. 이제 그 反面인 缺點을 보건댄 … (중략)… 朝鮮民族을 今日의 衰頹에 끌은 原因인 虛僞와, 懶惰와, 非社會性과, 및 經濟的 衰弱과 科學의 不振은 實로 이 根本的 民族性의 半面이 가져온 禍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民族性 그것이 惡한 것은 아니니, 이것은 우리 民族의 타고난 天稟이라, 어디까지든지 發揮하여야 할 것이외다. 그러므로 우리의 改造할 것은 朝鮮民族의 根本的 性格이 아니요, 르봉 博士의 이른바 付屬的 性格이외다. 그러할진댄 우리의 改造運動은 더욱 可能性이 豐富하다 할 것이외다.[38]

---

37)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론'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기 위해 동시대에 유행하던 민족심리학의 한 경향을 표상하는 구스타프 르봉의 '민족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개벽』, 1922.4)이란 제목을 달고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일부분, 즉 「종족의 심리적 성격은 어떻게 하여 변화하는가」의 제1절을 번역할 만큼, 이광수는 르봉의 '민족심리학'을 자신의 '민족성 개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론으로 삼고 있다. 르봉의 민족심리학은 동시대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평등론에 대항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 제국 일본의 식민정책론의 근거로 활용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런 외재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르봉의 민족심리학이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의 내재적인 측면에서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미친 영향이 자못 적지 않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南富鎭, 「ル・ボンの民族心理学の東アジアへの受容:李光沫・夏目漱石・魯迅を中心に」, 静岡大学人文社会科学部翻訳文化研究会, 『翻訳の文化/文化の翻訳』 9巻, 2014, 14-19쪽 참조.

www.kci.go.kr

여기에서 이광수는 『山海經』, 『東方朔神異經』, 『後漢書』, 『三國志』 등 중국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조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대어 조선민족의 '천품', 즉 변하지 않는 '근본적 성격'을 '관대, 박애, 예의, 염결, 자존, 무용, 쾌활'이라 규정하며 '민족성 개조' 운동이 가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가 르봉의 '민족심리학'을 토대로 하여 조선민족의 쇠퇴의 원인을 '근본적 성격'의 반면, 곧 '부속적 성격'에서 찾아 그것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르봉의 '민족심리학'에서 말하는 '근본적 성격'과 '부속적 성격'에 근거하여 민족성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축함으로써 조선의 쇠퇴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민족성 개조론' 이전의 조선민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새로운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론'을 펼치기 이전 발표한 「婚姻에 對한 管見」(『학지광』 제12호, 1917.4),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청춘』 제9호, 1917.7), 「今日 朝鮮耶蘇敎會의 欠點」(『청춘』 제11호, 1917.11), 「子女中心論」(『청춘』 제15호, 1918.9) 등의 논설들에서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하여 부각하면서 그것을 조선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동원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인은 '음일(淫佚)', '이기(利己)', '기만(欺瞞)', '시기(猜忌)', '사곡(私曲)', '폭학(暴虐)' 등의 악덕성에 의해 제약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 경제 및 교육의 쇠퇴, 정치의 부패가 초래되었다고 보면서 이광수는 그 근본 원인을 '이조의 유교'에서 찾았다.[39] 그가 '이조'시대와의 역사적 단절을 통해 조선민족이 '신인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역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론 이광수의 조선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식민 제국 일본이 문명과 야만의

38)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92쪽.
39)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7쪽.

www.kci.go.kr

이분법에 기초하여 구축한 조선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식민 제국 일본의 지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을 통해 이광수는 '민족성'이라는 형이상학적 본성을 상정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성 개조'의 가능성이라는 논리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40]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을 계기로 민족의 쇠퇴 원인에 대한 이광수의 이해 방식이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민족성 개조론'을 주장하기 전과 동일하게 그는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문제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적 쇠퇴의 원인을 '유교'가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족성'의 타락에서 찾게 됨으로써 자신의 '민족성 개조론'을 정당화한 것이다.

---

40) 한편,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은 이광수에게 생물학적 차원의 '인종'과 분리된 문화적 층위에서의 '민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하였다. 르봉의 '민족심리학'에 근거하여 이광수는 '민족성'을 '해부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민족성'을 '심리적 성격'에 국한된 것이라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일 국민의 역사는 반드시 그 종족의 심리조직에서 배태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심리적 특성만 알면 그 국민의 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판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국민의 문명을 조직한 각 요소는 그 국민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민족', '국민'을 생물학적 층위보다는 '정신'이라는 문화적 층위에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인용은 이광수,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인의 인생관」,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66쪽.) 이와 같이 르봉의 '민족심리학'에 근거하여 문화 공동체로서의 인식이 강했던 '민족' 개념은 그 토대 위에서 '종족의 심리조직에서 배태된' '정신'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광수가 「朝鮮民族論」(『동광총서』, 1933.6~7)에서 '민족'의 본질적 요소로 '혈통'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인종'과 구분되는 '성격의 기조', '정치, 철학, 문학, 예술, 과학, 습관, 취미, 언어' 등의 관념을 함축한 '문화'의 공통성을 꼽은 것은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영향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르봉의 '민족심리학'을 수용함으로써 이광수는 '민족' 개념에서 주관적인 '민족심리', '민족정신' 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www.kci.go.kr

> 朝鮮民族이 어떻게 이처럼 衰頹하였느냐 하는 問題에 대하여 日本人은 흔히 李朝의 惡政이 그 原因이라 하고, 西洋人도 그와 같은 뜻으로 Maladministration (惡政)이라 합니다. …(중략)… 舊態 惡政이라 하는 말에 무슨 意味가 있다 하면 그것은 「朝鮮民族의 衰頹의 責任은 그 治者階級-즉 國王과 兩班에게 있다」함일 것이외다. …(중략)… 하지마는 한 걸음 더 내켜 생각하면 이 亦是 全 民族의 責任이요, 또 한 걸음 더 내켜 생각하면 이 亦是 民族의 所使외다. 만일 英人같이 自由를 좋아하는 精神이 있고, 佛人같은 平等을 좋아하는 精神이 있다 하면 決코 信任치 못한 治者階級을 그냥 두지 아니하였을 것이외다. 또 治者階級인 그네에게도 自由, 平等, 社會性, 進就性이 있었다 하면 決코 朝鮮民族을 이렇게 못 되게 만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외다. …(중략)… 要컨대 朝鮮民族 衰頹의 根本原因은 墮落한 民族性에 있다 할 것이외다.[41]

이광수는 조선민족이 쇠퇴한 '직접적이고 총괄적인 원인'이 '이조의 악정'에 있기에 그 책임은 치자계급인 양반과 국왕에 있다고는 하지만, '치자계급'을 '산출하고 존속케 한' 일반 민중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 민중을 포함한 전 민족의 타락한 '민족성'에 조선민족 쇠퇴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조선민족의 쇠퇴 원인을 '민족성'이라는 '심리적 성격'의 타락에서 찾게 된 것은 '민족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축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된 르봉의 '민족심리학'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르봉의 '민족심리학'에 근거하여 쓴 논설 「팔자설을 중심으로 한 숙명론적 인생관」에서도 조선민족의 '도덕의 념' 결여를 문제화하면서 그 원인을 '나타', '요행', '미신', '의뢰' 등이 표상하는, 민중들의 '팔자설', '숙명론적 인생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의 현재 쇠퇴 원인을 '민족성'의 타락에서는 찾는 것은 그의 '민족성 개조론'의 내재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41)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183-184쪽.

www.kci.go.kr

갖는다. ‘민족성’의 타락이 현실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준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개조’의 방향을 ‘도덕적 방면’의 ‘내적 개조’에 제한함으로써 심리의 외부, 즉 역사적 현실을 괄호화하는 이념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민족개조론」을 비롯한 여러 논설들에서 현재 조선민족이 ‘경제적’, ‘도덕적’, ‘지식적’ 측면에서 파산한 양상을 일상 삶의 모습과 결부지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그 원인을 민족의 ‘병적 심리’ 결과로 설명하는가 하면, 당시 ‘세계 개조’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국제연맹’, ‘태평양회의’, ‘강화회담’ 등이 표상하는 일체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개혁’의 가능성을 ‘조선민족의 생활 개선’과는 무관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폄하하는 것 등은 그러한 이념적 효과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예라 하겠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광수가 조선민족의 현재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성 개조의 실천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 ‘무실’과 ‘역행’의 사상으로 표상되는 근대의 금욕윤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실’, ‘역행’의 사상이 어떤 면에서 근대의 금욕윤리를 표상하는가. 아래의 인용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 사람의 生命은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일이란 職業이외다. 職業으로만 오직 사람이 제 衣食住를 얻는 것이요, 제가 맡은 國家와 및 社會의 職業을 다하는 것이니, 일을 아니하는 者는 國家나 社會의 罪人이외다. …(중략)… 그러므로 사람을 批評하는 標準은 그의 하여 놓은 일뿐이니, 이것을 두고는 다른 標準은 없는 것이외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行하기를 力하자, 卽 力行하자, 누구나 한 가지씩의 職業을 가지자, 그리하여 그 職業을 부지런히 하자 하므로 民族改造의 根本則을 삼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 改造하려는 民族性의 根本을 實과 行에 두자 함이외다. 그밖에 모든 道德은 이 實과 行에 基礎하여 建設될 것입니다.[42]

42)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205-207쪽.

www.kci.go.kr

여기에서 이광수는 '민족개조'의 '근본칙'으로 삼아야 할 실천 원리가 '무실'과 '역행'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무실'과 '역행'은 '개조'하려는 '민족성'의 근본 원칙들인 것이다. 나아가 그는 '무실'과 '역행'을 내면화하기 위한 여덟 개의 실천 강령을 제시한다.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공상과 공론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를 부지런히 실행하게', '표리부동과 반복함이 없이 의리와 허락을 철석같이 지키는 충성되는 신의 있는 자가 되게', '고식, 준순(浚巡) 등의 겁유를 버리고 옳은 일, 작정한 일이어든 만난(萬難)을 무릎 쓰고 나가는 자가 되게', '보통상식을 가지고 일종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술을 배워 반드시 일종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근검, 저축을 상(尙)하여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가지게', '가옥, 의식, 도로 등의 청결 등 위생의 법칙에 합치하는 생활과 일정한 운동으로 건강한 체격의 소유한 자가 되게' 등[43]이 그것들이다. '실'과 '행'으로 집약되는 이 강령들은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이 '자기규율'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한 '직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내면화해야 할 삶의 규범들이다. 주목할 것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실'과 '행'을 내면화하려면, 이 여덟 개의 실천 강령이 보여주듯, 감정과 감각에서 비롯되는 세속적인 욕망을 억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대의 금욕윤리를 특징짓는 '자기규율'의 정신이 세속적 욕망이 억압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황폐한 내면을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과 '행'은 곧 근대의 금욕윤리를 표상하는 가장 중요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광수는 '일'과 '직업'이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이유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을 국가와 사회의 '죄인'이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윤리 및 노동윤리의 내면화가

43)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3, 201쪽.

www.kci.go.kr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규율'의 정신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윤리 및 노동윤리를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실'과 '역행'은 근대의 금욕윤리를 표상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가 '민족성'의 '부속적 성격' 가운데 특히 '허위', '나타'를 '도덕적 악성병'에 비유하면서 철저히 배척해야 할 것으로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광수가 직업윤리와 노동윤리를 강조한 것이 그의 이상적인 노동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근대 금욕윤리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특징이다. 근대 금욕의 도덕의식은 근대의 이상적인 노동 표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가 「예술과 인생」에서 '인생의 도덕화'와 '인생의 예술화'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직업의 예술화'를 제시하고 있는 아래의 진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職業이란 本質上 快樂의 感情을 伴할 것이요, 苦痛을 伴할 것이 아니외다.…(중략)…다만 여기서 하나 볼 것은 그 勞役의 기쁨에 重要한 要件이 自由인 듯합니다. 自己가 하고 싶은 自己의 職業을 함인 듯합니다. 기쁨은 奴隸적 勞役의 産物이 아니요, 自由人의 勞役의 産物인 듯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重要한 點이니, 社會組織의 合理·不合理의 標準이 여기서 나올 것이외다. 곧 各人으로 하여금 自由人으로 自由의 職業을 取하게 하는 것이 理想的 社會組織의 根本原理가 될 것이외다.…(중략)…職業의 藝術化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個人의 心的 態度의 適應如何에 있습니다.[44]

인용문에서 이광수는 '사회조직의 합리·불합리'를 판단하는 표준이 '자유인의 노동'에 있으므로 '이상적인 사회조직의 근본원리'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취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역설한다. 노동이 문화적·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되고, 금욕윤리에 의해 내면적으로 작동되는

44) 이광수, 「예술과 인생」,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36쪽.

www.kci.go.kr

근면주의가 대두한 시기가 근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광수가 '이상적인 사회조직의 근본원리'로 자유로운 노동과 직업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직업의 예술화'를 강조한 것은 '무실'과 '역행'을 실천 원리로 하는 '민족성 개조론'이 근대의 금욕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직업의 예술화' 가능성이 '개인의 심적 태도의 적응여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노예적 노역'이 표상하는 역사적 현실의 고통 문제 해결을 '개인의 심적 태도의 적응여하'의 문제로 대체하는 이념적 효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이광수의 제기한 '이상적인 사회조직의 원리'로서의 노동 및 직업 표상이 다이쇼 일본의 문화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쿠와키 겐요쿠의 '勞動創理想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45]도 고려할 때, '민족성 개조론'이 낳는 이념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정치와 문화의 분리, '인격'의 완성, '내적 개조', '예술적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특권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5) "노동과 이상이란 이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즉 이념(物質創理念)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즉이상(勞動創理想)에 다름아니다. …(중략)… 노동은 노동자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 생활의 자기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분배의 문제 즉 정의, 자유의 문제와 연결하여 표면상 물질적 관계의 일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나는 것임이 분명하다.…(중략)… 노동문제 등의 외부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부 생활 발전의 요구인 것이다. 사람들의 내부생활 즉 그 자아가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문화라 부른다. 따라서 세계 개조의 선천적 기초는 문화를 제일의로 하는 것에 있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쿠와키 겐요쿠가 제기한 '勞動創理想論'의 요체는 노동의 목표를 직업을 통해 자아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둔다는 점에서 이광수가 주장한 직업의 예술화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桑木嚴翼, 『文化主義と社會問題』, 東京, 至誠堂, 135쪽.

www.kci.go.kr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민족주의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역설적 접속을 자기 본질로 하는 이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의 이념적 특성을 내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는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에 내재된 문화적 민족주의의 역설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이 다이쇼 시기 일본의 보편주의 담론, '문화주의'를 이념적인 근거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대의 금욕윤리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의 논점은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다이쇼 시기 식민 제국 일본의 '문화주의'를 그 이념적 근거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광수는 '민족성 개조론'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적인 방면에서 민족개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민족성 개조론'의 특성은 정치와 문화의 분리, '문화'의 특권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쇼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의 목적을 '수양'을 통한 '인격'의 완성, '내적 개조', '예술적 개조' 등에 제한함으로써 예술과 인생, 정신과 권력을 대립적으로 보고, '문화' 그 자체가 정치의 매우 타당한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다이쇼 '문화주의'의 이념적 효과가 구체화된 양상이다. 그 결과 '민족성 개조론'은 역사적 현실 자체를 괄호화하는 특성을 내포하게 된다.

둘째, 이광수 '민족성 개조론'은 '무실'과 '역행'의 실천 사상으로 구체화된다. 이광수가 제시한 '무실'과 '역행'은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이 '자

www.kci.go.kr

기규율'의 정신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한 '직업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윤리' 및 '노동윤리'의 내면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무실'과 '역행'은 근대 금욕윤리를 내재화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자기규율'의 내면화와 근면주의에 입각한 노동 표상이 바로 근대 금욕윤리는 근본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이처럼 근대의 금욕윤리를 표상하는 '무실'과 '역행'의 실천 원리를 통해 '민족성 개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르봉의 '민족심리학'의 수용을 통해 '민족성'이라는 민족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의 배면에 놓인 근대의 금욕윤리는 고통에 찬 역사적 현실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심리적 태도의 전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현실 그 자체를 괄호화하는 이념적 효과를 낳는다.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론'은 3.1운동의 실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문명한 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문화적 민족주의의 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광수의 기획 의도는 '문화주의'와 근대의 금욕윤리라는 두 가지 보편주의 담론의 이념적 효과로 인해 조선민족이 처한 역사적 · 정치적 현실을 괄호화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광수가 '완전한 범인'으로 표상한 '민족개조라는 대종교'의 '사도'들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근대적 '개인'으로 환원되고 만다. 바로 여기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역설적 접속을 본질로 하는 민족주의 이념의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사엽 편수,『독립신문』, 문학생활사, 1988.

이광수,『이광수전집』16, 삼중당, 1963.

_____,『이광수전집』17, 삼중당, 1963.

桑木嚴翼,『文化主義と社會問題』, 東京, 至誠堂, 1920.

최주한 · 하타노 세츠코 엮음,『이광수 초기 문장집』2, 소나무, 2015.

2. 논문과 단행본

고마고메 다케시,『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이명실 외 옮김, 역사비평사, 2007.

김경미,『이광수 문학과 민족담론』, 역락, 2011.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출판사, 1999.

김 항,「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민족문화연구』제5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63-185쪽.

김현주,「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현대문학의 연구』제1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11-45쪽.

_____,「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1920년대 초반『개벽』지의 '정신 · 민족성 개조론' 연구」,『상허학보』제6집, 상허학회, 2000, 213-244쪽.

_____,「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역사와 현실』제57집, 역사비평사, 2005, 111-140쪽.

도면회 · 윤해동 엮음,『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009.

마이클 로빈슨,『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 나남, 1990.

미야카와 토루외 엮음,『일본근대철학사』, 이수정 옮김, 생각의 나무, 2001.

박찬승,『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역사비평사, 1992.

신기욱,『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9.

엘리스 K. 팁튼 · 존 클락 엮음,『제국의 수도, 모더니티를 만나다』, 이상우 외 옮김, 소명출판, 2012.

엘리 최,「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문학사상』, 문학사상사, 2008, 76-94쪽.

오사와 마사치,『내셔널리즘의 역설』, 김선화 옮김, 어문학사, 2014.

유선영,「식민지의 '문화'주의, 變容과 事後」,『대동문화연구』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365-407쪽.

www.kci.go.kr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특성과 일본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제4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99-143쪽.

이에나가 사부로, 『근대일본사상사』,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 옮김, 소명출판, 2006.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테리 이글턴 외, 『민족주의 · 식민주의 ·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今村仁司, 『近代の思想構造』, 人文書院, 1998.

南富鎭, 「ル・ボンの民族心理学の東アジアへの受容:李光沫・夏目漱石・魯迅を中心に」, 静岡大学人文社会科学部翻訳文化研究会, 『翻訳の文化/文化の翻訳』 9巻, 2014, 13-32.

H. Harootunian, "Introduction: Asense of an Ending and thr Problem of Taisho", H. Harootunian & B. Silberman ed., *Japan in Crisis;Essays in Taisho Democracy,* Princeton Univ., 1974, pp.3-28.

www.kci.go.kr

Abstract

Re-reading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Lee, Kwang-Su
- focused on the ideological effects of culturalism and asceticism

Kim, Byeong-Gu(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 of nationalism which is the paradoxical connection between universalism and specialism, and intends to identify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Lee, Kwang-Su through an intrinsic approach. The issue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wo aspects.

First,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Lee, Kwang-Su was formed on the basis of "culturalism" of Japanese colonial empire. He insists on eliminating politics and developing ethnic reform movements in a moral wayi in the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This argument can be explained by the ideological effect of Taisho Japan's culturalism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culture and the privilege of culture. The ideological effect of culturalism led to the perception that he confused the arts and life, mind and power by restricting the purpose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the completion of 'personality', and culture itself could be a valid substitute for politics. Therefore, the issue of historical reality is parenthesized in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Second, The principle of practice of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Lee, Kwang-Su is 'Musil'(務實) and 'Yeoghang'(力行). Those set the goal of life for the individual to grow into a diligent prof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self-discipline'. Therefore, those are characterized by the internalization of work ethics and labor ethics. The spirit of self-discipline and internalization of labor ethics are also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ascetic ethic, and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in Lee, Kwang-Su is a discourse that embodies modern abstinence ethics. The reason why he was able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usil'(務實) and 'Yeoghang'(力行) is that he accepted the metaphysical nature of 'nationality' through acceptance of Gustav Le Bong's 'national psychology'. However, the modern abstinence ethic inherited in Lee, Kwang-Su's 'the

www.kci.go.kr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has the ideological effect of dismissing the reality itself by replacing the problem solving of historical reality with the psychological attitude change of the individual, the artistic reconstruction of life.

(Key Words: Kwang-Su, nationalism, 'the theory of Nationality Reconstruction', 'Taisho Japan's culturalism', politics, culture, 'the artistic reconstruction', 'Musil'(務實), 'Yeoghang'(力行), abstinence ethics, 'self-discipline', 'national psychology')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2일

www.kci.go.kr